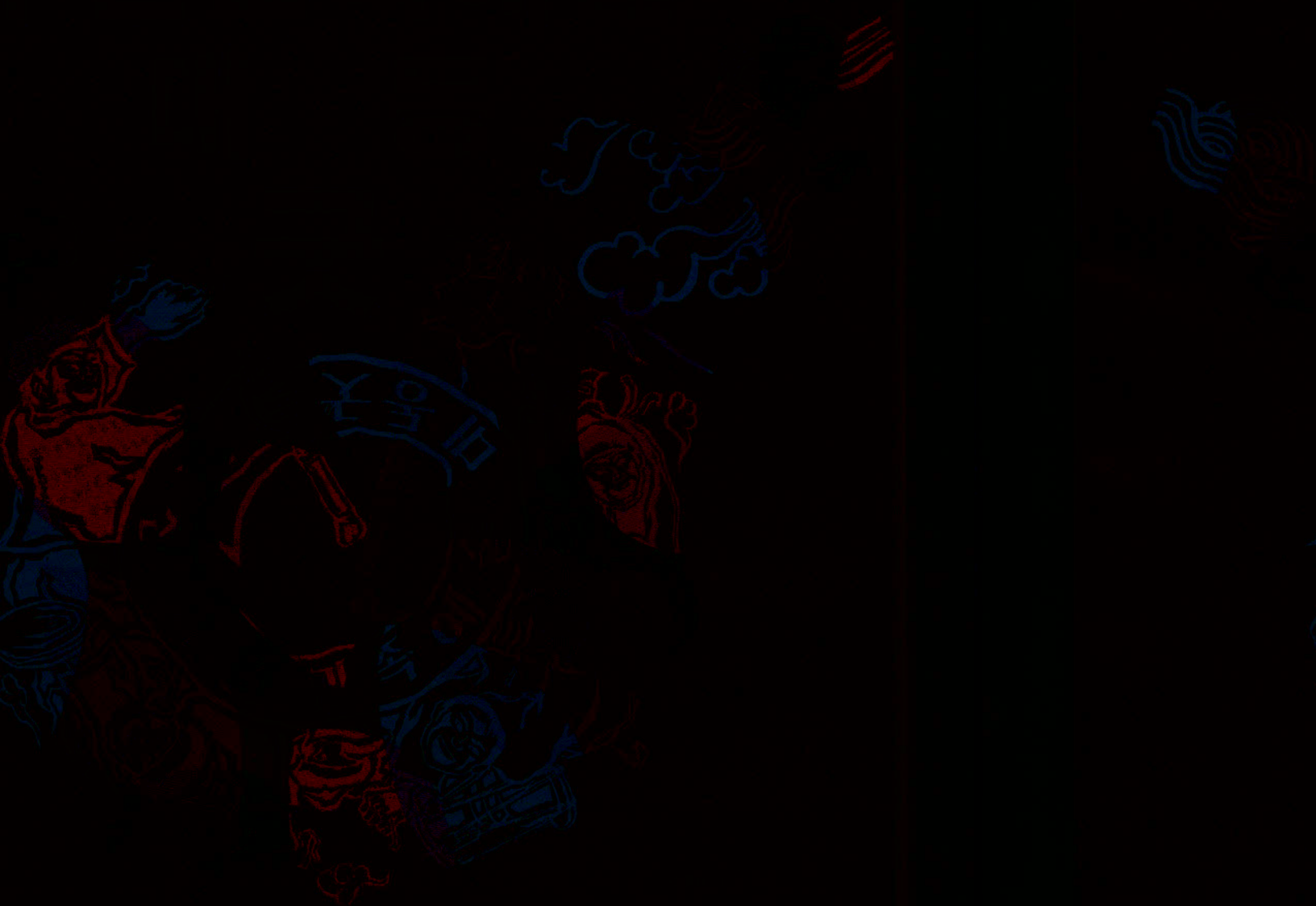


●극단 자갈치 ●극단 새벽 ●놀이패 일터 ●미술운동연구소 ●노래야 나오너라 ●영상패 꽃등림

89, 9, 22 - 10, 22



2010년 9월 22일 - 10월 22일

대동궐을 열면서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한데 엉켜 애국가를 부르며 남포동, 서면으로 독재자의 종말을 예고하며 전진하던 10월이다.

4백만 부산시민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사람답고자던 염원이 매듭매듭 10년을 거듭해온 10월이다.

그 염원은 6월 항쟁의 불길로, 노동자의 인간됨을 선언한 대 파업투쟁의 자부심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부산에서 민족예술 대동궐을 열고자 함은 지금 우리주위를 배회하는 반민족적, 반민중적 악령을 제거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을 되찾고자 함이다.

예로부터 한반도 남단 부산은 잦은 외세의 침탈속에서 삶이 유린되어왔으나, 그만큼 자주성과 민족성이 강하게 이어져 왔다.

허나, 오늘에 있어 매국적 위정자의 농간에 외래문화가 무분별하게 침투되어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삶 전체를 위협하며 지역민의 정서적 토대까지 흔들고 있다.

이에 외세에 물든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유흥문화를 걸러내고 자주적이며 생산적인 지역민의 공동체문화를 발전시키므로 자족적 행사가 아닌 온 시민의 염원이 한데 엉켜 잡것들을 막아내고 만복을 담아내는 부산시민 공동의 걸판진 곳판이 되었으면 한다.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 의장 채 희 완

극단 「자갈치」 “민주꽃신 바람”

자갈치 공동창작, 공동연출 ☎528-3492

배우: 정승천 이명우 전병복 김창이 정영배
강미정 김진희 정희영 홍순영 정문현
이미화

뒷 패

황해순 송미경 오지희 노정림 박미나



극단 자갈치(대표:강희철)는 “주먹밥, 주먹손”에 연이어 두번째로 창작한 노동현장 극은 부산의 대표적 산업인 신발업체에서 일어나는 만성적 폭력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민주노조를 세우고 지키는 여공들의 삶을 통해 신발업체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구체적 전망을 세워 보고자 하는 작품이다.

회사측과 단체협상이 있었던 저녁 딸이 엄마의 생일잔치가 벌어진다.

수업을 늦게 마치고 온 산업체학생 ‘꼭지’를 통해 새로운 노조결성 소식을 전해 듣는다.

한편 노조과과 전문가인 ‘하계장’은 신민주노조결성의 계략과 음모를 꾸미는데 가수가 꿈인 ‘미선이’를 음흉히 유도해 아폴로의 밤 예행연습을 알아내고 노조간부와 노조원을 납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제적으로 노조해체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만든다.

이런 회사측의 노조과과 공작과 일상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의 단결과 노조연대의 행사인 아폴로의 밤을 개최하고...

이를 위해 부산지역 신발업계 노동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여공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운동의 전망을 찾기위해 노력하였고 현장적 구체성이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창조적 상상력도 사용하였다.

● 놀이패 일터 ●

부산 놀이패 일터에서는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해 오고 있는 단체로서 지난 4월에는 극 “출어지면 죽는다”를 만들어 5개월을 거쳐 오면서 각현장과 지방을 순회하면서 100회 정도 공연한 바 있다.

놀이패 일터의 89년 하반기 중요 일정으로는 9월 20일 부터 10월 2일까지 하는 함께하는 ‘제1차 일터 문화교실’이 있다. 목적은 그동안 현장에서 풍물을 중심으로 운영한 소모임 활동의 한계극복과 실천을 위한 이론의 보강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은 문화에 관심있는 노동자, 일반이다. 중간에 쉬는 날이 없으며

10월 1, 2일은 문화학교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수련회가 있다.

내용은 문화실기 3회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삶과 철학, 노동자와 망치, 노동자의 일상활동과 단체행동, 민족민주운동과 노동운동, 노동문화운동사, 노동자 문화패의 역할, 조직과 운영, 문화패의 당면과제 등이다.

강사는 연성수, 노문연 의장, 석탑, 마산의 일꾼 노동문제연구소, 놀이패 일터에서 담당한다.

강습료는 15,000원, 장소는 놀이패 일터 온천장 사무실.

문의 전화는 645-9483

행사일정표

(9월22일 ~ 10월22일)

9월 22금 - 열림마당 - 장소 : 두레마당 오후7시 ☎862-0847

23토 ← 극단 자갈치 공연 ☎528-3492

민주꽃신바람

장 소 : 두레마당 (10일간)
평 일 : 7시30분 (1회)
토·일 : 5시, 7시30분
공휴일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극단 새벽 공연 ☎862-0847

수·우·미·양·가

장소 : 두레마당 (15일간)
매일 : 4시, 7시30분 (2회)

10월 1 (국군의날)

2 (공휴일) ←

3 (개천절) ←

4수

5목

6금

7토

8일

9 (한글날)

10 (양영진 추모1주기) ←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

16월 ←

17화 ←

18수

19목

20금 ←

21토 ←

22일 ←

미술운동연구소 ☎642-4801

부활하는 항쟁전

장소 : 두레마당 카톨릭센터
(30일간 순회)

"영상패 꽃두림" ☎83-0444

시월영화제 (11일간 순회상영)

10~15 부산대, 16일 동아대
17일-동의대, 18일-부여대
19일-부산외대, 20일-수산대
매일 : 12시, 2시30분, 5시

노래야 나오너라

정기공연 ☎68-7941

장소 : 경성대 콘서트 홀
시간 : 4시, 7시30분 (2회)

대 동 제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주관
☎ 68-7941

후원 회원을 찾습니다

"일터에서는 놀이가 되고, 싸움터에서는 화살이 되고, 굶터에서는 비나리가 되는데"

후원회원

- 본 협의회 참가단체의 공연에 초대됩니다.
- 문화관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월 20,000원 년 240,000원

자료회원

- 본 협의회 행사에 할인초대 됩니다.
- 문화 관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월 5,000원 년 60,000원

온라인 / 부산은행 067-01-022159-1

예금주 : 채 희 완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

(68-7941)